



KUKUKAKA

필리핀 바기오팀 12월 활동보고서



크리스마스 바기오YMCA 76주년 불꽃놀이 마을행사



KUKUKAKA

12월의 주요 활동



목차

행사참여

바기오 관광

우리의 생활 (feat. **홈스테이**)

기록 삭제

검색어 저장 끄기/자동완성 끄기



KUKUKAKA

1. 행사 참여



마을축제 76주년 선물나눔 결혼식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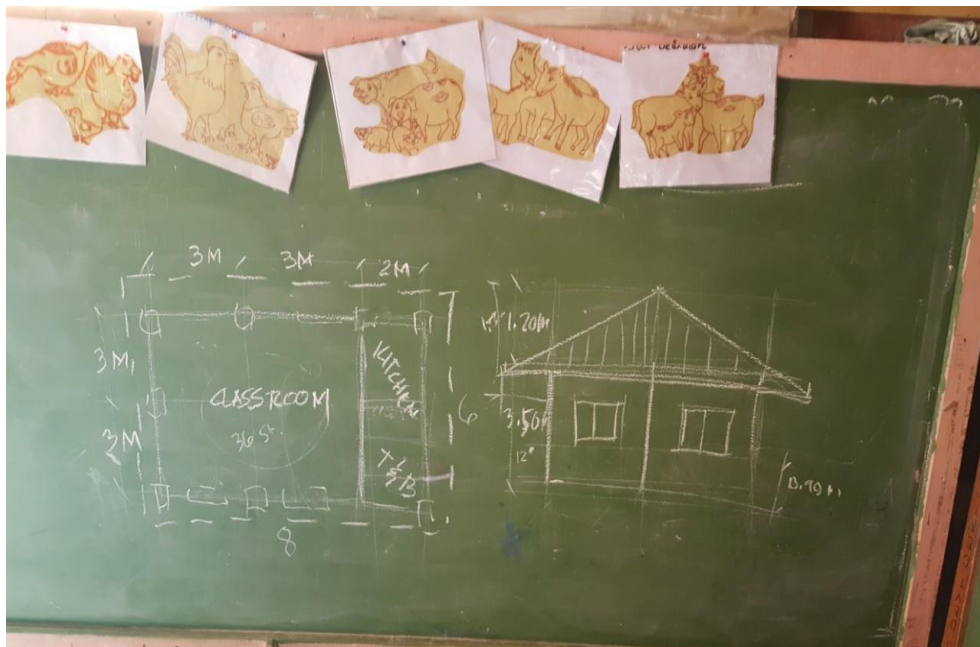
12월의 중순, 바기오 YMCA 직원들과 이사진들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다. 오전에는 크리스마스 요리 준비를 도왔으며, 행사 중에는 여러가지 전통 게임에 참여해볼 수 있었다. 다양한 필리핀 크리스마스 음식들이 입에 잘 맞았기에 기분 좋게 식사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몇가지의 게임에서는 불편함을 느꼈었다. 특히, 특정한 과일을 사용해 진행되는 게임들은 의아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코디네이터의 가족분들과, 총장님의 가족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Ymca 의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겁게 보냈었다. 아쉬웠던 점은 가족끼리 보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일찍 내려왔던 점이였다. 외지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조금 더 즐겁게 보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짧은 식사시간이 아쉬웠었다.



12월 5일, 우리는 beda day carecenter에 바기오 ymca의 director들과 함께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하여 그곳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줄리비와 장난감들, 서적들, 옷들을 준비해갔다. 우리가 주로 활동 했던 곳이라서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beda daycarecenter의 위치를 옮기고 이전보다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 날 다른 director들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함께 의논을 하였고, 1월에 본격적으로 홈스테이 진행과 함께 center 재건설에 주된 시간을 보낼것 같다.

또한, 바기오 주변의 병원에도 방문하여 선물과 돈을 나눠드린 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수혜적으로 진행된 방식이었다. 행사에 특색에 맞게, 선물을 준다는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잔뜩 준비해서 간 것들을 한쪽에 쌓아놓는 방식이 보여주지 활동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다. 또한, 입지 않는 옷들을 나눠준다는 개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세탁이 된 깨끗한 옷들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남았다. 게다가 병원방문 활동은 몸이 아프신 분들께 돈을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itogon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교회에서의 크리스마스라서 흥미롭게 다가왔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들을 준비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다같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라는 점도 좋았었다. 특히 오른쪽 사진은 우리의 코디네이터 이자, 목사님이신데 예상치 못한 등장에 공연이 더욱 즐거웠었다.



행사 중간중간에는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다. 방학 중이라 오랜만에 만난 Day care center의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고, 그들의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한국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배우나 짧은 한국어들은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다.



우리는 itogon 광산 지역에서 benguet 마을축제에 참가 하였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을사람들이 준비한 여러 공연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따갈로그가 아닌 일록카노라는 언어를 사용 하기에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유추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축제의 분위기는 도시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곳의 시설, 사람들의 표현도 도시와는 달리 약간은 거칠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행동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노출이 도시보다는 확실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도시 말고 다른 곳에서의 축제를 맞이함으로써 필리핀의 또 다른 부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스러움을 보여주는 무대들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행사 중 가장 큰 환호들을 보내는 마을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었다.



12월 1일은 바기오 YMCA의 76번째 기념일이였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바기오시내를 도는 퍼레이드에 참가하였다. 퍼레이드는 바기오 YMCA Pre-School, 이사회 등 이외에도 다양한 바기오 YMCA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에서 참가 하였다. 이를 통해 수백명이 넘는 현지의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동안 한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나갔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기회이자, 퍼레이드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little Miss & Mr YMCA 행사를 진행하였고,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코스를 보여주며 현지에 대한 표현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작 아이들보다도 부모님들의 참여가 더 컸던 것 같았다.



저녁에는 만찬행사가 있었는데,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경품추첨하는 시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품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축하공연을 위해 몇 일간 준비하였던 붐바스틱, 강남스타일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우리들이 전문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어 나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KUKUKAKA

2. 바기오 관광하기



La union san fernando vigan 바기오 주변 여행하기



오전일정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까지 짧은 관광을 해볼 수 있었다. 전통 가옥들을 전시해놓은 공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미술작품들도 관람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었다. 산으로 연결된 산책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점심 먹기 전 기분 좋게 둘러볼 수 있었다. 이 관광지 바로 옆에 있던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할 수 있었는데, 현지 소시지가 정말 맛있었다 !



아침부터, 바기오 내의 관광을 시작했다. Lourdes grotto 는 가장 높은 위치에 교회가 위치한 공간이었다. 꽤나 많은 계단은 힘들었지만, 경치가 정말정말 아름다웠다. 다음으로는 오래된 호텔을 방문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내부가 그대로 유지되어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놀랐었다. 하지만, 아마 밤에 방문했다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



바기오 시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항상 방문해보았는지를 물어보던 장소에 방문할 수 있어서 즐거웠었다. 특히나 총장님도 함께 하시면서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했었다.



오후에는 전통적인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 갈 수 있었다.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난 뒤에는 박물관 정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은 성에 관한 미술작품을 보면서 여성인 내가 들은 질문들과 상황이었다. 어떻게 반응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남는다.



국내훈련 중, 함께 바기오 관광지를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었던 사자 동상에 다녀왔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당황스러웠고, 너무 많은 관광객들에 한번 더 당황했다. 사실 결국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하나도 잘나온 것이 없었다...

참고로 첫번째 사진은 가는 길에 필리핀과 일본 협력사업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장소 설명이 조금 협소했던 부분이 아쉬웠었다.



바기오 주변에 있는 가장 유명한 휴양지이다. 다양한 리조트를 방문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여러 군데를 보여주시려는 총장님의 배려는 감사했지만,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이 날 여행에서 점심은 총장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고려해서 시켜주신 덕에 더 맛있게 먹었다. 현지 누들인 판씨를 좋아하는 jojo와 현지 소시지 요리인 롱가니사를 좋아하는 jimmy 를 위해 그 음식을 시켜주셨었다.



이후, 크리스마스에도 이 곳을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차의 고장으로 la union 의 졸리비만 들린 채 돌아왔었다. 바기오와는 달리, 더운 날씨에 휴양지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에 프리스쿨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현지 분들이 정말 자주 가는 휴양지라며 이야기해주셨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la union 보다 조금 더 먼 위치에 있는 바다를 방문할 수 있었다. 수영을 기대하고 갔지만, 시간이 부족해 수영을 할 수는 없었다. 우리보다도 아쉬워하는 총장님의 손녀, 손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짧은 시간을 보냈다.



KUKUKAKA

SAN FERNANDO





오후에는 vigan 이라는 도시에 있는 동물원에 방문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넓은 공간에 풀어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이 눈에 띄었다.



동물원의 가장 위에는 사파리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었다. 한 개인이 이 많은 동물들을 수집했다는 점이 놀라웠다. 동시에 한 사람의 수집욕구가 너무 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KUKUKAKA

VIGAN (TAMAG + CENTER)





저녁에는 이 도시의 중심부를 방문했다. 연말 시즌이라 사람들도 너무 많았지만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있는 기분이라 행복했었다. 이후에 돌아와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현지 분들과 했었는데, 다들 하나 같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다시 방문하고 싶지만, 정말 너무 멀다,,, 당시 우리는 Y의 직원들 중에서 운전을 해주는 꾸야가 데려다 주었었다. 물론 본인은 여행을 좋아한다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운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었다.







KUKUKAKA

3. 우리의 12월 생활



홈스테이 마을살이 가족만남 만찬 우리의 nanay 집 방문



우리가 10월, 11월에 주로 활동했었던 beda-day care center와 가까운 곳에서 일주일 동안 남자와 여자로 나눠 10m정도의 거리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하였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도시와 다른 삶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삶도 직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외 시간에는 홈스테이 하는 곳의 집안일을 도왔다. 그리고 이곳은 광산에서 일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 이기 때문에 돌조각, 모래 등과 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기계들이 집에 하나 씩 다 있었다. 우리는 그 기계의 원리에 대해 배웠고, 앞으로 1월 홈스테이를 위해 조금씩 그곳에 스며드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1월 홈스테이가 지금은 너무 기대가 된다.



매일 밤마다 캠프파이어를 하며 가족들과 얘기를 하며 서로간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ANNIE 집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나는 아이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었다. 매일 밤마다 슈퍼주니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잠에 들었었다.



KUKUKAKA

일주일동안의 홈스테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다 보니 사실 정말 서로 집의 가족들과도 이웃처럼 잘 지냈었다. 특히 오빠 네 집에는 할머니께서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고, 불편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아침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홈스테이는 행복했었다.





또한 마을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며 몇 일 남지않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우리가 손수 제작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과 함께 앞으로 1월에 진행 할 빈곤캠페인에 대한 설명 하였다.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빈곤은 쓰레기 문제였고, 학생들은 왕따문제를 이야기해주었다. 분리수거 교육을 진행하기로 이야기했었는데, 실제 마을은 쓰레기를 불에 태워버리고 있었다. 과연 분리수거나, 재활용이라는 방법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광산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데이케어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갔었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적응해서 놀 수 있도록 도우면서, 평소보다 우리들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우리들을 위해 한식을 준비해주신 ANNIE 덕분에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괜히 우리를 너무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바기오를 방문했었다. 오전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에는 한국음식을 대접해드렸다. 대체적으로 맛있게 먹었지만, 비싼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서 한식뷔페에 간 것이었는데 홈스테이 엄마께서 한식을 너무 드시지 못해서 아쉬웠었다.



토요일, 광산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홈스테이 엄마께서 알려주셨다.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서 낮 행사는 참석하지 못했고 저녁행사를 참석할 수 있었다. 전통결혼식은 처음이었는데, 밴드가 공연을 하고 함께 춤추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었다. 이곳에서 일본인, 필리핀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이 친구들의 차를 얻어타서 바기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일정 상 혼자 참여했던 활동이라 조금 무섭기도 했었다. 사전에 들은 정보가 없는 상태였는데 홈스테이 가족들은 하루 밤을 자고가길 원했었고, 행사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 피부 두드러기로 힘들었던 시기에,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분위기에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홈스테이 가족 중 agree 가 보디가드라며 나를 계속 도와줬지만, 내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었다.



12월 30일에는 총장님 가족분들과 바기오 주변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다양한 필리핀 전통음식이 있어서 이것 저것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 바로 앞에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활동 초기때 돌잔치를 했었던 총장님의 손자인 아기와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





12월 31일에는 총장님 댁을 방문할 수 있었다. 총장님 댁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마을 아랫쪽에서 하고 있는 불꽃놀이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총장님이 초대해주신 덕분에 행복하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아쉽지만, 가족분들끼리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11시 정도에 바기오 YMCA로 돌아왔었다.



돌아온 우리는 사실 잠깐 동안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한 뒤에, 주변 큰 공원으로 향했다. 불꽃놀이가 열린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아름다웠었다. 불꽃놀이를 보는 동안에 새해를 맞이했고, 다들 불꽃놀이에 집중한 나머지 함께 사진 한 장 못 찍었다,,,,, ㅎㅎㅎ



KUKUKAKA

우리들의 개인 에세이



2017년 마무리 진짜홈스테이 시작 2018년 1달 뒤 귀국,,?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맞았다. 우리는 그 때, YMCA 근처 번햄파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보았다. 우리 모두 불꽃놀이를 보면서 각자 나름의 소원들을 빌었을 것이다.

지난 12월 한달은 정해진 일정없이 흘러갔다. YMCA 자체 행사도 많았고 광산에서 일주일 동안 앞으로의 홈스테이 생활을 예행연습하기도 하였다. 사실 그 일주일이 기억에 많이 남긴하였는데, 여태 도시인 바기오에서 먹고 자고 했던 우리라 불편한 것들이 많았다. 날이 너무 더웠고 화장실은 가기 꺼려졌고 저녁만 지나도 아무런 불빛조차 보기 힘들었다. 데이케어센터로 오고가면서 광산이 우리에게 낯선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 곳에서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단순히 불편함을 경험했기만은 아니다. 가족들과 살면서 그들과 친해졌고 음식을 나눠먹고 서로 각자의 요리를 해주었다. 밤에는 불빛이 없는 대신 마당에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러니하게 광산에 다녀온 후 여기 바기오에서의 생활이 무료해졌음을 느낀다. 이건 여담이지만 광산의 여파로 한진이와 서경이가 개 진드기 알레르기에 걸려 온 몸의 두드러기가 났다. 나는 그러지 않은걸 보아 나름 체질인듯 싶다.



2017년의 마무리였던 12월은 개인적으로 아픈 관계로 중순부터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달이었다. 12월은 대부분이 기독교 종교를 가진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며, 연휴의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라온아띠도 새로운 활동보다는 YMCA 사람들과 바기오와 근처 관광지를 관광하고, 마을 축제에 초대받아 현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활동동안 가장 기대했던 홈스테이가 12월의 진행되었지만,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1월은 대부분이 홈스테이로 보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써 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 지난 활동에서 나의 모습의 후회가 많이 남아서 인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12월 동안 팀원으로서 팀들에게 가장 미안하고, 활동에 함께 하지 못한 나를 오히려 위로해준 팀들에게 고맙다.

여기에 온지도 어언 몇 달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여기의 문화, 문제점, 사람간의 관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12월은 한국과는 달리 한달 내내 축제분위기였다.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바기오 ymca에서 nanay와 함께 리조트, nanay house, 바이간 여행 등 그 외에도 바기오 도시에서 바기오 ymca 76주년 행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퍼레이드를 하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외 지역 행사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신도 그들과 동화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홈스테이를 통해 지금까지 느낀 것과는 달리 현지 부모님에 대한 따뜻함과 도시와는 다른 여기의 일상생활을 여기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 또한 이곳의 공동체의 하나로 됨을 느낄 수 있었다. 1월의 홈스테이가 기다려진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지금, 바로 오늘부터 광산 홈스테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홈스테이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된 홈스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12월은 예상대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특히나 여러 행사들을 참석할 기회도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다. 타지의 생활에서 각오한 부분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외롭기도 했었던 연말이었다. 다양한 곳들을 더 다녀보려고 노력했고, 없던 일정들도 만들어서 참여했고 총장님도 다양한 행사에 초대해주셨지만 사실 외로움이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귀국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인 것 같다. 이제야 내가 놓치고 지나온 것들이 생각나고 후회도 많이 되고 있다. 지속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민폐는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나는, 한국인을 만나고 있는 나는 지속적인 부정적인 민폐만 끼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야 나는 그런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마지막으로, 조조의 개인에세이를 읽으면서 생각난 이야기인데, 개 진드기 알레르기는 정말 정말 끔찍하다. 아마 나는 내일도 몸을 긁으면서 잠에서 깨겠지. 한국에 가면 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중이다.